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ren's Self Esteem

최정미* · 우희정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Choi, Jung Mi · Woo, Hee Jung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lineate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f the children's self-esteem. Such variables as the mother's age, her education level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were chosen for the analysis. The sample subjects were 659 pairs of fifth/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first/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 First, the children's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o mother's education level but the children's self-esteem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o mother's age. Second, parenting 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relationship and learning expect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o children's self-esteem. Third,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variables(mother's age, her education level, parenting stress) to the children's self-esteem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relationship and mother education level were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s.

Key words : parenting stress, self-esteem

I. 서론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기 가치감에 대한 개인적 판단(Coopersmith, 1967)이며,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Harter, 1982)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행동, 적응 등 일생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격적 성숙의 지표로 강조되어 왔으며(Vernard, 199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적응과도 관련된다. 특히 아동기의 발달에서 중심적 과제가 되는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판단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송인섭, 1989). 아동기는 자아개념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초로 자기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지각하면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즉, 인식주체로서의 자아가 타인이 자기를 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형성해 가면서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

이처럼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Rogenberg, 1979).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나 반응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 수용, 애정과 일관된 훈육을 받는 아동은 대체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되고(박영애, 1995; Baumrind, 1967), 긍정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근심이나 걱정이 적고(Rogenberg, 1979),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하였다(신종순, 1991).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
Tel : 062) 530-1317 Fax : 062) 530-1329
E-mail: shuma523@hanmail.net

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부적절감과 무가치감을 보고하였고(Wylie, 1979), 위축행동과 불안행동을 보이며(서선주, 1999) 불안, 고립, 우울감을 경험하고(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불안, 대인예민성, 신경증 수준이 높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Rogenberg, 1979), 애정을 주고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외롭다고 느끼며 수치감과 우울감도 느껴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Coopersmith, 1967).

특히 초기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전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아동은 그가 속한 가정환경 안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많은 경험의 결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oopersmith(1967)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필수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자녀에게 명확한 제한을 제시하고, 그 한계 내에서 아동의 행동에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결론지었다.

이렇듯 부모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부모는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일차적인 사회화의 모델로서 강화의 원천이기도 하며 또한 부모는 아동이 최초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되는 아동들의 생활과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자이다. 따라서 아동은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타인으로서의 부모, 또는 자녀들의 사회화의 모델로서의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원의 욕구수준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역할은 과거에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과는 달리 그 역할 수행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혜란, 1984, 한세영, 1996), 아울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특히 여성의 경우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즉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과정에서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아버지보다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과 행동특성, 어머니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서소희, 1994).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렵게 만든다(박해미, 1994).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또한 Belsky(1984)는 스트레스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확대와 우울을 높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현선(198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매사에 자신 있게 행동하는데 비해 학력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감이 없고 행동도 소극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정용(198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아개념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들(손화희, 1990; 안경영, 1992; 이진용, 1990)이 있다. 그리고 신수정(1994)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아동양육의 경험부족이나 미숙한 부모, 아동발달단계를 포함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모 등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다. 여겨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이 양육스트레스임을 밝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단일영역으로 간주함에 따라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세부적인 특성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고자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 파악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자녀양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선정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연구해 봄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자아실현과 아동의 건전한 성격발달,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적용, 아동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성취에 대한 개인의 성공을 예상 확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부차적인 목적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어머니로 대행되는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
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총 65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가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가 .70,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가 .6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검사는 Coopersmith(1967)등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659)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아	296(44.9)	어머니 연 령	만37세 이하	198(30.4)
	여 아	363(55.1)		만38-40세	237(36.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147(22.3)		만41세 이상	217(33.3)
	초등학교 6학년	161(24.4)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13(32.8)
	중학교 1학년	209(31.7)		고등학교 졸업	317(48.8)
	중학교 2학년	142(21.5)		대학교 졸업 이상	120(18.5)

연구를 참조,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이고 4개의 하위척도, 즉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자아존중감, 가정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총체적 자아존중감 .72, 사회자아존중감 .80, 가정자아존중감 .73, 학교자아존중감은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s α),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인 가정자아존중감($p<.001$), 사회자아존중감($p<.05$), 학교자아존중감($p<.001$), 총체적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자아존중감은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하 순으로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자아존중감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의 자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의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들(Baldwin & Revenson, 1986; Lasley & Conger, 1986)과 비슷하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가정자아존중감($p<.001$), 사회자아존중감($p<.01$), 학교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보다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과 사회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자아존중감($p<.001$), 사회자아존중감($p<.001$), 학교자아존중감($p<.05$), 총체적 자아존중감($p<.01$)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 보다 사회자아존중감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자아존중감($p<.001$), 사회자아존중감($p<.001$), 학교자아존중감($p<.001$), 총체적 자아존중감($p<.001$)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 순으로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아존중감은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하집단이 중집단 이상보다 높게 나타

<표 2>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N=659)

변인	구분	가정자아존중감			사회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M	D	F	M	D	F	M	D	F	M	D	F
어머니 연령	만 37세 이하	34.36			30.41			23.31			21.53		
	만 38 - 40세	33.99	2.13		29.67	0.95		22.86	1.58		21.04	1.05	
	만 41세 이상	33.05			29.69			23.60			21.06		
어머니 교육 수준	대졸 이상	35.56	A		30.93	A		24.73	A		22.12	A	
	고졸	34.09	B	9.54***	30.06	AB	4.10*	23.05	B	7.04***	21.44	A	9.93***
	중졸 이하	32.36	C		28.99	B		22.94	B		20.29	B	

D.Duncan's * $p<.05$ *** $p<.001$

<표 3>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N=645)

변인	구분	가정자아존중감			사회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			총체적자아존중감		
		M	D	F	M	D	F	M	D	F	M	D	F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	31.49	B		28.74	B		22.15	B		20.77		
	중	34.90	A	19.26***	30.01	A	5.95**	23.30	A	10.99***	21.38		1.68
	하	34.80	A		30.72	A		24.09	A		21.34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상	31.27	C		28.53	B		22.70	B		20.43	B	
	중	34.14	B	25.48***	30.52	A	7.23***	23.47	AB	3.73*	21.18	A	6.08**
	하	35.64	A		30.43	A		23.84	A		21.71	A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	35.43	C		28.33	B		22.33	B		19.97	C	
	중	34.11	B	16.53***	30.20	A	14.69***	23.07	B	13.03***	21.41	B	22.09***
	하	32.02	A		31.28	A		24.36	A		22.25	A	

D:Duncan's * p<.05 ** p<.01 ***p<.001 집단분류 : 하<M-SD, M-SD≤중≤M+SD, M+SD<상

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게 나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33,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24, P<.0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24,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17, P<.001$), 어머니의 연령($r=-.08,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25,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9,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6,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11,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교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21,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r=-.21,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12, P<.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1,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27,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8,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17,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08,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89), 잔차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정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25,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15, p<.0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09,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사회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18,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10, p<.05$),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8,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1. 어머니의 연령								
2. 어머니의 교육수준	-.07							
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3	-.10**						
4.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5	-.07	.44***					
5.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05	-.17***	.43***	.42***				
6. 가정자아존중감	-.08*	.17***	-.24***	-.33***	-.24***			
7. 사회자아존중감	-.05	.11**	-.16***	-.19***	-.25***	.48***		
8. 학교자아존중감	.03	.12**	-.21***	-.11**	-.21***	.30***	.27***	
9. 총체적 자아존중감	.05	.17***	-.08*	-.18***	-.27***	.49***	.54***	.28***

* p<.05 ** p<.01 ***p<.001

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사회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6, p < .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4, p < .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0,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학교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22, p <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4, p < .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 = -.10,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인 가정자아존중감($p < .001$), 사회자아존중감($p < .05$), 학교자아존중감($p < .001$), 총체적 자아존중감($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하 순으로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교자아존중감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의 자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의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들(Baldwin & Revenson, 1986; Lasley & Conger, 1986)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을 자신의 대리자아로 여겨 아동을 통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아동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유지코자 권위적으로 아동들에게 군림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므로(조병은 외, 199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최정미, 1999),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

<표 5>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변인	가정자아존중감		사회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		총체적자아존중감	
	B	β	B	β	B	β	B	β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9	-.08	-.03	-.03	-.11	-.14**	.05	.0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2	-.25***	-.12	-.10*	.02	.03	.07	-.10*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22	-.09*	-.38	-.18***	-.24	-.16***	-.29	-.22***
어머니의 교육수준	1.37	.15***	.71	.08*	.64	.10*	.75	.14***
어머니의 연령	-.58	-.07	-.44	-.06	.14	.03	-.27	-.06
전체	F=21.29*** R2=.15		F=9.85*** R2=.07		F=9.69*** R2=.07		F=12.32*** R2=.09	

* $p < .05$ ** $p < .01$ *** $p < .001$

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가정자아존중감($p < .001$), 사회자아존중감($p < .01$), 학교자아존중감($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보다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과 사회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자아존중감($p < .001$), 사회자아존중감($p < .001$), 학교자아존중감($p < .05$), 총체적 자아존중감($p < .01$)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 보다 사회자아존중감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자아존중감($p < .001$), 사회자아존중감($p < .001$), 학교자아존중감($p < .001$), 총체적 자아존중감($p < .001$)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 순으로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아존중감은 중집단 이하가 상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하집단이 중집단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 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 1997),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Minuchin, 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정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 = -.25$, $p <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5$, $p < .0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09$,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사회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8$, $p < .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 = -.10$, $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8$,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사회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6$, $p < .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4$, $p < .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0$,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학교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 = -.22$, $p <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4$, $p < .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 = -.10$,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체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아동의 가정자아존중감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는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

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것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가정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자아존중감과 학교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즉 자녀가 공부를 스스로 잘못하고 매사에 어머니의 기대만큼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 때 아동의 사회자아존중감과 학교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생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고등학교 어머니 못지 않게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학교 공부와 관련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 사회풍토,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를 가늠하는 외형적인 잣대이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 중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욱 높였을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양육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이 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더 많이 격려하고, 아동의 정서표현이나 사회적 지지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조병은 외,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최정미, 1999),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육수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도 포함시켜 연구를 확대할 것과 아동의 자아존중감만이 아닌 포괄적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참 고 문 헌

- 박영애(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화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전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 신종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영(1992). 어머니의 언어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 용(198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용,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 Baldwin, C. M., & Revenson, T. A.(1986). Vulnerability to economic str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61-175.
-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Belsky,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Lasley, P., & Conger, R. D.(1986). Farm crisis response : Extension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north central region. Ames : North Central Regional Center for Rural Development, Iowa State University.
-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C.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 Schaefer, E. S., &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Vernard, M.L.(1993). Deperssion, learned helplessness, and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 Comparisons between homeless and ho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Wylie, R.C.(1979). *The self-concept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 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4. 04. 18 접수; 2004. 06. 15 채택)